



천진우



김창진



김성훈



김수자



백영심

## ‘2015 호암상’ 나노과학 대가 등 5명

과학 천진우·공학 김창진  
의학 김성훈·예술 김수자  
사회봉사엔 백영심 간호사

■ ‘나노과학의 대가’ 천진우(53·연세대 언더우드 특훈교수) 박사와 ‘말라위의 나이팅게일’ 백영심(53) 간호사 등 5명이 ‘2015년도 제25회 호암상 수상자’로 확정됐다.

호암재단은 올해 호암상 수상자로 과학상에 천 박사와 사회봉사상에 백 간호사를 선정한 것을 비롯해 공학상에 김창진(57·미 UCLA 교수) 박사, 의학상 김성훈(57·서울대 교수) 박사, 예술상 김수자(58) 현대미술작가 등 5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.

천 박사는 나노과학을 의학 분야와 성공적으로 접목, 진보적 융합과학 연구분야를 개척했다. 또 김창진 박사는 나노(1나노미터=10억분의 1m) 사이즈의 바늘 구조 표면을 개발해 더 작은 에너지로 동작 가능한 제품 상용화에 기여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했다. 김성훈 박사는 암 억제 단백질들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항암제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김 작가는 독창적 예술세계를 구축해 뉴욕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현대 미술작가다.

또 백 간호사는 ‘말라위의 나이팅게일’로 평가받는 인물이다. 수상자들은 상장과 메달(순금 50돈), 3억 원의 상금을 받게 된다.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호암아트홀.